

Research Center

2015년 7월 21일

투자전략 Daily

- 파생/ETF 전략

ETF Chart book: Risk on 지속

- 이머징마켓 동향

차익부담, 정책 우려 등에 주요 이머징 약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대교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코웨이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건자재, 호텔·레저, 엔씨소프트, LG화학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글 로 벌 전 략 | 박중제 ☎ 3276-6560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송철 ☎ 3276-6181

스 몰 캡 전 략 | 정훈석 ☎ 3276-6232

이 머 징 마 켓 | 윤향진 ☎ 3276-6280

채 권 분 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R E I T s | 이수정 ☎ 3276-6252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7/13(월)	7/14(화)	7/15(수)	7/16(목)	7/17(금)	7/20(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61.52	2,059.23	2,072.91	2,087.89	2,076.79	2,073.31
	등락폭	30.35	-2.29	13.68	14.98	-11.10	-3.48
	등락종목	상승(상한)	683(8)	536(11)	488(15)	454(5)	283(2)
		하락(하한)	147(0)	284(0)	325(1)	353(0)	534(0)
	ADR	106.29	112.93	110.79	111.30	106.65	105.46
	이격도	10 일	100.00	99.96	100.75	101.57	101.17
		20 일	100.01	99.83	100.40	101.01	100.40
	투자심리	60	50	5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426	503	619	698	819	863
	거래대금 (십억 원)	6,235	6,807	7,571	7,511	8,471	5,968
코스닥	코스닥지수	749.46	757.12	761.59	774.40	773.23	782.64
	등락폭	18.74	7.66	4.47	12.81	-1.17	9.41
	등락종목	상승(상한)	683(1)	536(1)	488(1)	454(4)	283(5)
		하락(하한)	147(0)	284(0)	325(0)	353(0)	534(1)
	ADR	101.29	107.76	104.65	108.11	104.61	105.21
	이격도	10 일	100.53	101.36	101.94	103.58	103.37
		20 일	101.33	102.01	102.32	103.69	103.24
	투자심리	60	50	5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553	593	680	694	774	659
	거래대금 (십억 원)	3,593	4,002	4,192	4,890	5,060	4,264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925.7	1,058.0	964.0	189.1	141.2	230.5	54.4	24.1	324.726
	매도	3,795.5	1,077.0	1,066.4	218.1	168.1	277.1	58.1	29.9	315.2
	순매수	130.2	-18.9	-102.3	-29.0	-26.9	-46.5	-3.7	-5.7	9.5
	7 월 누계	2,125.1	-808.0	-982.3	116.9	-219.5	-322.2	-142.0	-129.3	-286.2
	15 년 누계	2,408.8	7,488.8	-9,833.9	-5,231.9	-1,328.0	-6,049.6	-700.2	-697.7	4,173.4
코스닥	매수	3,775.0	235.7	260.2	59.0	28.9	69.2	28.6	5.2	69.3
	매도	3,863.5	198.6	190.1	49.5	23.2	44.9	10.9	7.2	54.4
	순매수	-88.5	37.0	70.1	9.4	5.7	24.3	17.7	-2.0	14.9
	7 월 누계	-24.4	-119.7	448.6	63.9	71.6	203.9	37.8	-31.2	102.6
	15 년 누계	697.2	-423.2	1,149.0	-126.3	371.6	616.7	56.4	-172.3	402.8

ETF Chart book: Risk on 지속

2015년 Target KOSPI	2,300pt
12MF PER	10.08배
12MF PBR	0.93배
Yield Gap	8.1%P

- ▶ 미국 은행주 강세. 금리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에 긍정적 신호
- ▶ 미국 바이오, 인터넷 ETF 최고치 경신. Risk on 지속
- ▶ 달러 강세 재개. 부정적 영향보다 유로 약세 따른 유럽계 자금 재유입 가능성 염두

■ 미국 은행주 강세

미국 금융주 ETF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경신

미국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금융주 ETF(XLF)가 지난주에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그림 1). 씨티그룹은 지난 주 목요일(7/16) 예상을 상회하는 2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3% 이상 급등했는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주가 상승과 함께 역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던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다는 점이다(그림 2).

[그림 1] 미국 금융주 ETF(XLF, Financial Select SPDR),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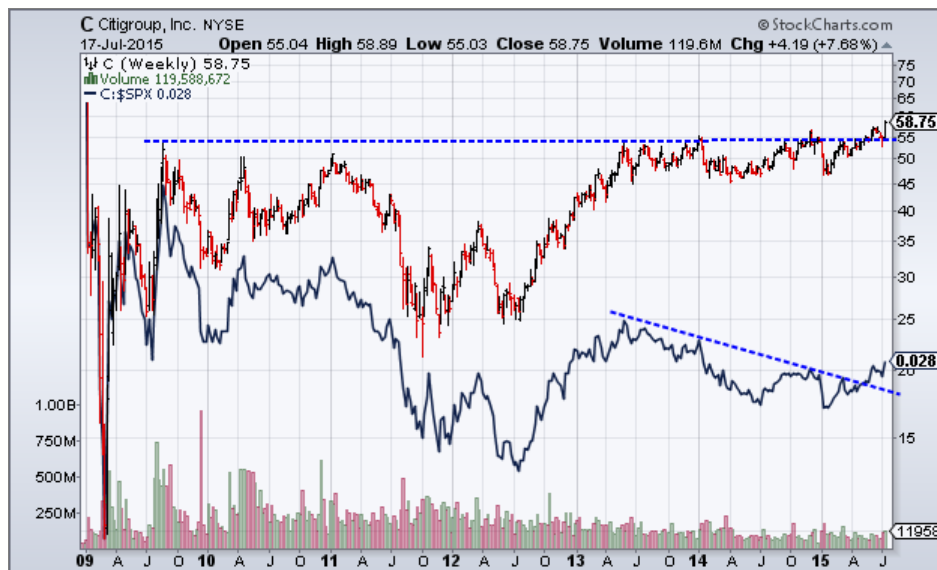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위험자산에 긍정적 신호

은행주 강세에 주목하는 이유는 임박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때문이다. 2분기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전망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지난주 의회연설에서 엘런 연준의장은 최근 IMF 등이 연내 금리인상 ‘자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리인상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지만, 금리 상승과 동반으로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된다. 장기금리 상승과 은행주 강세의 조합은 민간 대출수요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 경기회복이 모멘텀을 얻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즉, 경기 회복을 동반한 금리 상승을 의미하므로 위험자산에 긍정적 신호다.

[그림 2] 씨티그룹 weekly 차트 - 금융위기 이후 박스권 상향 돌파



자료: Stockcharts.com

■ 바이오와 인터넷 ETF 최고치 경신

바이오, 인터넷 ETF
최고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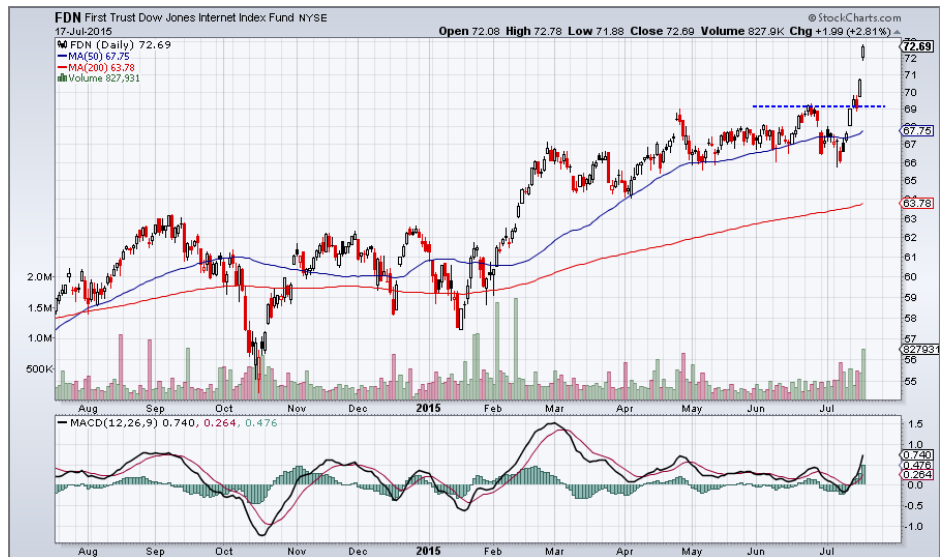
바이오와 인터넷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역시 Risk-on 지속을 시사하는 현상들이다. 미국 바이오 ETF (IBB)와 인터넷 ETF (FDN)는 지난주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림 3] 미국 바이오 ETF (IBB, Biotech iShares) 최고치 경신



자료: Stockcharts.com

[그림 4] 미국 인터넷 ETF(FDN, FT Dow Jones Internet Index) 최고치 경신



자료: Stockcharts.com

■ 달러 강세 재개

유로 약세/달러 강세 재개

지난 주 그리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유로화가 3개월간 지속되던 하락 저항선을 하향 이탈했다. 올해 이후 유로화는 carry trade의 베이스 통화로 이용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시 유로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몇 개월간 지속됐던 그리스 우려가 잦아들면서 위험선호가 재개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 약세는 즉 달러 강세를 의미한다(달러인덱스에서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지난주 미국 달러인덱스 ETF(UUP) 역시 3개월간 이어지던 하락 저항선을 뚫고 상승 반전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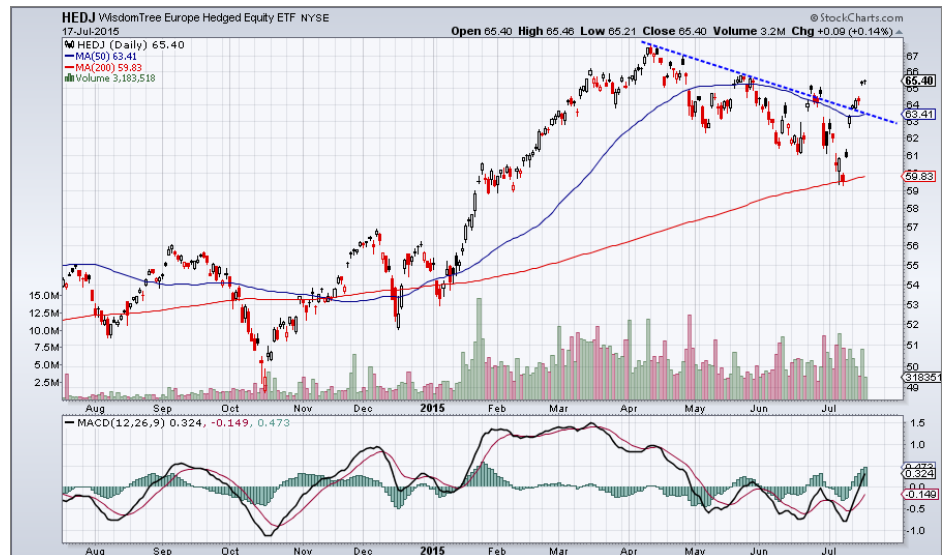
[그림 5] 미국 달러인덱스 ETF(UUP), 상승세 반전



자료: Stockcharts.com

달러 강세의 재개는 유럽과 일본주식에 긍정적이다. 유로화 매도로 환헤지를 하는 유럽투자 ETF(HEDJ) 역시 하락추세를 뚫고 상승세로 반전했다. 특히 그리스 우려로 최근 몇 개월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유럽주식의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22일자 데일리 자료 ‘그리스, 진실의 순간’ 참고).

[그림 6] 환헤지(유로 매도)를 하는 유럽 ETF(HEDJ) 역시 상승세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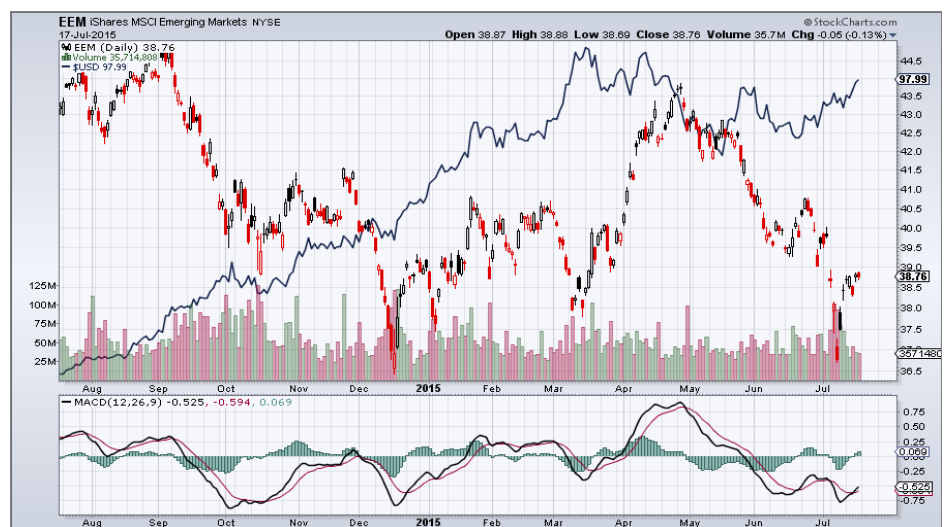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 EM 주식, 달러 강세 부담 vs 유럽 發 유동성 유입

달러 강세는 아무래도 EM 주식에는 부담요인이다. 지난 3월초 달러의 급격한 강세와 함께 조정을 받았던 EM 주식이 달러의 약세 반전과 함께 바닥을 찍고 크게 반등했던 경험이 있다(그림 7).

[그림 7] iShares MSCI EM ETF(EEM)와 달러 인덱스 (실선은 달러 인덱스)



자료: MSCI, Merrill Lynch Fund Manager Survey, Short side of Long.com 재인용

단 달러 강세가 EM 주식에 부담요인이지만, 3월 초에 EM 주식 하락을 유발했던 건 달러 강세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던 점 때문이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달러 강세가 은행주 강세에서 보듯 경기회복과 동반한 것이라면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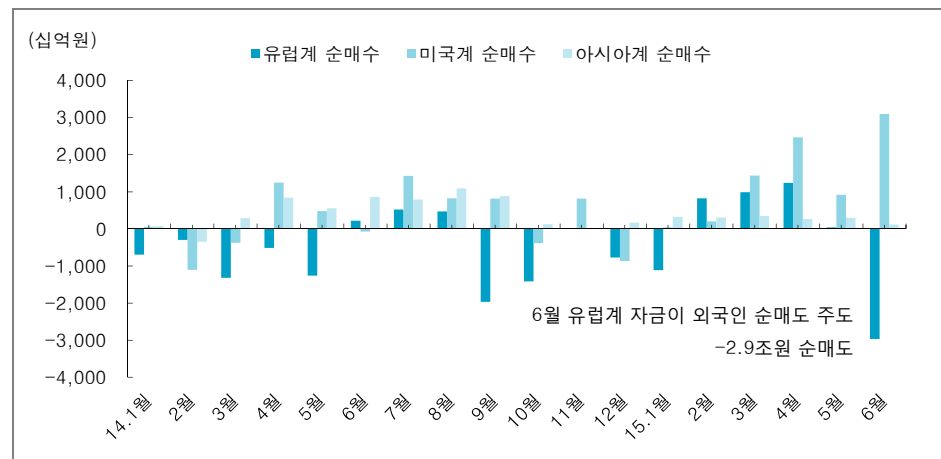
유로 약세와 함께 유럽계 자금 재유입 가능성

아울러 달러 강세의 거울인 유로 약세와 함께 연초부터 기대했던 부분이 소위 유럽계 자금의 (EM 및 한국증시)유입이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럽자금의 국내증시(KOSPI) 매수 추이를 보면, ECB QE 이후 유로 약세와 함께 2월부터 4월까지 눈에 띄게 늘었던 유럽계 자금의 국내주식 매수가 5월에는 유로 강세 반전과 함께 급감했으며, 6월에는 -2.9조원 순매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6월 순매도는 월간기준으로 2013년 6월 이후 최대 규모다.

달러 강세의 속도가 완만하게 유지된다면, 그리스 우려 해소 및 유로 약세 재개와 함께 유럽계 자금의 국내주식 매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8] 국적별 KOSPI 순매수, 월간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투자증권

〈표 1〉 글로벌 ETF 머니플로우 (7월 17일 기준, 주간단위 순유입 추이)

ETF		총자산 (\$ mil)	7/17	7/10	7/3	6/26	6/19	6/12	6/5	5/29	4 주 합계	4 주 유입강도
US Stock												
다우지수	DIA	12,609	-0	679	409	-270	17	160	9	180	817	6.5%
S&P500	SPY	186,543	1,878	9,355	-3,559	-2,935	1,480	4,790	-2,714	760	4,738	2.5%
Nasdaq 100	QQQ	40,603	434	-486	-674	459	1,013	-607	210	-149	-266	-0.7%
Russell 2000	IWM	30,239	-330	1,158	-1,343	-600	1,819	9	2,501	-709	-1,114	-3.7%
배당주	DVY	14,024	-54	-57	-45	-130	-54	-58	-31	-8	-286	-2.0%
US Bond												
T-Bond 1-3 Yr	SHY	10,754	475	475	890	25	-178	119	-212	-34	1,866	17.3%
T-Bond 3-7 Yr	IEI	5,221	12	74	208	25	320	24	73	161	319	6.1%
T-Bond 7-10 Yr	IEF	6,157	84	-53	-157	-31	-53	-63	116	-11	-158	-2.6%
T-Bond 20+ Yr	TLT	4,974	446	-46	167	326	-309	-72	-323	-258	892	17.9%
TIPS Bonds	TIP	13,935	22	158	34	0	90	11	-134	68	214	1.5%
High Yield Bond	JNK	10,621	543	314	-182	-57	-307	-386	-388	-196	618	5.8%
US Sector												
Biotech	IBB	9,900	98	115	-37	42	-39	-36	275	-292	218	2.2%
Health Care	XLV	16,153	345	67	148	484	287	19	-112	19	1,044	6.5%
Pharmaceutical	XPH	1,198	-13	0	0	0	-6	-12	-13	-12	-13	-1.1%
Internet	FDN	3,329	86	30	23	55	11	10	27	20	195	5.8%
Semiconductor	SOXX	375	-72	-67	41	-18	14	19	49	-20	-116	-31.0%
Financial	XLF	20,619	-1,238	1,239	908	-26	-126	924	169	354	883	4.3%
Home Builders	XHB	1,875	46	25	66	-43	13	91	-2	-13	95	5.1%
Real Estate	IYR	4,356	-11	-164	243	-74	124	38	-335	232	-6	-0.1%
Energy	XLE	12,284	-118	-55	183	-152	76	21	-19	-79	-142	-1.2%
Commodity												
Commodity	GSG	789	2	5	0	0	-3	0	-19	4	7	0.9%
Crude Oil	USO	2,309	26	346	-35	-80	135	-51	-155	195	256	11.1%
Natural Gas	UNG	620	-26	10	-46	20	-20	-14	63	-10	-42	-6.8%
Gold	GLD	25,370	-412	-67	-67	361	-79	-170	-274	23	-185	-0.7%
Silver	SLV	4,899	35	20	16	-56	0	133	44	-14	14	0.3%
Agri Commodities	DBA	965	28	0	9	0	0	13	0	0	37	3.8%
FX												
US Dollar Index	UUP	1,112	-66	-66	-184	-30	0	90	140	-133	-345	-31.1%
Euro Currency	FXE	298	0	-49	-98	50	-11	-0	11	37	-98	-32.9%
Japanese Yen	FXJ	117	8	0	0	-23	28	28	12	0	-16	-13.3%
Australian Dollar	FXA	185	0	-7	0	8	4	-8	-4	12	0	0.0%
DM Stock												
Europe	VGK	15,328	502	63	0	178	101	85	68	57	743	4.8%
Europe(Hedge)	HEDJ	21,719	343	194	72	306	31	125	214	99	915	4.2%
United Kingdom	EWU	3,557	30	0	0	46	0	483	34	35	75	2.1%
Germany	EWG	7,489	78	-48	9	345	35	167	8	44	384	5.1%
France	EWQ	363	0	-37	0	5	0	0	0	0	-31	-8.7%
Japan	EWJ	20,257	514	-85	31	125	353	210	63	181	585	2.9%
Japan(Hedge)	DXJ	18,195	61	-213	-29	215	-21	84	345	234	35	0.2%
EM Stock												
Emerging Markets	EEM	26,564	-52	-725	-1,420	-202	-72	-670	-278	-19	-2,399	-9.0%
Emerging Markets	IEMG	7,479	0	0	10	109	49	0	0	51	119	1.6%
South Korea	EWY	3,913	0	8	0	51	19	22	0	0	59	1.5%
China 25	FXI	7,069	-353	-44	0	144	78	366	0	477	-252	-3.6%
Taiwan	EWT	3,967	0	-157	0	13	9	0	0	0	-144	-3.6%
India	EPI	2,610	0	-9	0	0	0	13	38	39	-9	-0.3%
Thailand	THD	312	0	-15	12	8	-15	-12	-34	-8	5	1.4%
Brazil	EWZ	2,717	0	0	33	47	144	-232	-168	0	80	3.0%
Mexico	EWX	1,496	0	57	-69	35	-17	-127	-76	-29	24	1.6%
Russia	RSX	2,110	55	0	-7	0	0	0	-7	0	47	2.2%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4주 유입강도는 4주 자금유입 합계/ETF 총자산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차익부담, 정책 우려 등에 주요 이머징 약세

- ▶ 상해종합지수는 하반기 경기호전에 대한 신뢰 강화 전망에 상승
- ▶ 홍콩H지수가 중국정부 안정화 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 선반영에 하락
- ▶ 인도증시는 Idul Fitri의 기념일로 휴장. 7월 22일 개장 예상
- ▶ VN지수는 차익부담, 정부재정 적자, 은행권 부실대출 우려 등에 급락

상해종합 0.9% 상승,
대부분 업종 동반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0.9% 추가 상승해 3,992p로 마감했다. 장 초반 급등하며 4,000p 상향 돌파에 성공했으나 직후에 정부자금 회수 루머가 나오면서 장중 급격한 변동을 경험했다. 거래대금은 6,882억위안으로 최근 이틀 수준보다 확대됐다. 장중 급락에 대비해 중국 감독당국은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증시 안정화 자금의 회수 루머를 즉시 부인해 오후 들어 지수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주택가격 지표가 개선추세를 유지해 하반기 경기호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줬다. 군수산업 관련주들이 강세락을 이어가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상한가로 마감했다. 주말에 인민은행이 인터넷금융에 대한 관리방법을 발표하자 로컬 소프트웨어 업체와 대형 핀테크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쳤다. 항생전자는 정부당국의 장외 신용거래 조사가 한주간 지속되고 있으며 HOMS 업무가 전면 중단될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했다. 가계용품, 환경보호, 하드웨어, 유통, 컨슈머서비스, 미디어, 헬스케어, 반도체 등의 중소형 업종지수가 3~5% 가까이 상승하며 강세를 주도했고 차스닥지수는 2.3% 올랐다.

홍콩H지수 0.6% 하락,
대부분 업종 약세 마감

■ 홍콩 시장

홍콩H지수가 0.6% 하락해 11,774p로 마감했다. 전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주택착공건수 등 경제지표와 구글의 분기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미국 경기회복 전망이 강화됐고 그리스 구제금융안도 합의를 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등 외부 호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 안정화 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시장이 약세를 기록했다. 선강통이 오는 9~10월에 출범될 것이란 정부발언도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자동차, 부동산, 증권, 전력, 보험, 비철금속, 건설자재, 은행 등을 비롯한 대부분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던 반면에 통신, 제약, 음식료 등 관련 개별 종목들은 상승 마감했다.

■ 인도네시아 시장

Idul Fitri로 휴장

■ 베트남 시장

VN지수 1.3%0 반락
대부분 업종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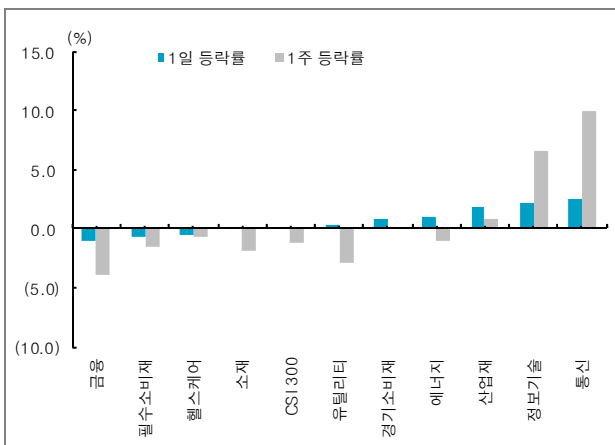
VN지수는 하루 만에 1.3% 급락했고 620선을 위협했다. 차익실현 매물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재정 적자 우려, 높은 은행권 부실대출 유지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적이 밝히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 부동산, 석유, 유통, 통신 등 대부분 업종이 동반 하락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건설업체 OGC는 4거래일 연속 상한선을 기록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재정부, 현재 위안화 환율은 이미 합리적인 균형수준에 근접 증감회, 주식시장 안정기금의 회수 검토 루머 부인 올해 하반기에 지급준비율 100bp 추가 인하될 예상 - HSBC
러시아	6월 실업률 5.4% (직전치 5.6%)
러시아	6월 소매 판매 증가율 -9.4% (직전치 -9.2%)
브라질	6월 산업신뢰지수 (직전치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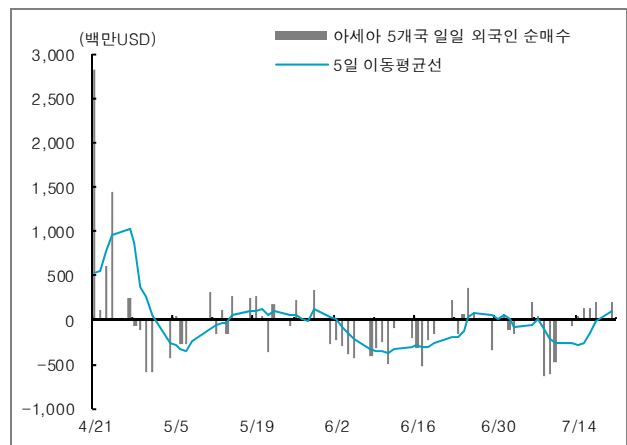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7/20(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3,992.11	0.88	0.55	-6.67	23.42
홍콩 H	11,773.92	-0.64	-1.92	-9.30	-1.76
중국 차스닥	2,848.30	2.33	6.16	-0.36	93.53
인도 SENSEX	28,371.67	-0.32	1.47	2.13	3.17
인도네시아 JCI	4,869.85	-0.65	-0.04	-0.83	-6.83
태국 SET	1,470.79	-0.58	-1.33	-2.24	-1.79
베트남 VN	620.54	-1.29	-2.13	4.64	13.73
MSCI 이머징마켓	941.68	0.00	-0.14	-3.14	-1.53

주: 20일 오후 6시 00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실적 부담 속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별 매매가 엇갈리며 혼조 마감

- 미국증시는 경제 지표 호조로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고조되자 다우지수가 약세를 보인 반면, 나스닥 지수는 구글 등 기술주 급등에 힘입어 이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혼조세로 마감.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투신을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하락반전 후 2,070P선을 이탈하기도 했으나, 개인 매수세로 하락폭을 다소 줄이며 2,073P로 마감. 조선주를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우려감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 반면, 코스닥은 투신을 비롯한 기관과 장 초반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하루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상승을 주도. 1% 이상 강세를 보이며 780P선 돌파에 성공.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해외여행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공개 매각 소식이 전해지며 남광토건이 상한가를 기록. 텐센트가 중국 서비스를 맡는 '미르의 전설 2' 모바일, '열혈전기 모바일'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감에 게임주의 강세가 두드러짐. 또한, 한샘이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 이에 따른 영향으로 건자재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정부의 정책 수혜 및 참치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수산주의 강세가 돋보임. 반면, 실적 악화 우려감에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조선주가 연일 하락세를 보였으며,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저가를 기록

종목/이슈	내 용
하나투어(039130) ▶180,000(+11.11%)	내국인의 해외여행 시장 정상화 진전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난달 전체 송출객수가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고가 경신 - 아울러, 서울과 제주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며 이에 따른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게임주	하반기 신작 모멘텀이 부각되며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해 개발한 모바일게임 '열혈전기'에 대한 기대감에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감에 강세 - 액토즈소프트(052790, +22.27%), 위메이드(112040, +11.59%), 웹젠(069080, +10.52%), 한빛소프트(047080, +9.47%), 네오아레나(037340, +9.14%), 엠게임(058630, +5.96%) 등 강세
건자재 관련주	2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샘이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하며 주가가 30만원선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며 관련주 동반 강세 - 하츠(066130, 상한가), 금강공업(014280, +11.11%), 한샘(009240, +7.92%), 동화기업(025900, +7.15%), 파세코(037070, +6.94%), 덕신하우징(090410, +6.03%), 에넥스(011090, +5.28%), 한솔홈데코(025750, +5.08%), 이견산업(008250, +4.51%), 이견창호(039020, +4.17%)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MH에탄올(023150) ▶15,650(+10.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도 소주 인기가 급상승하며 국내 소주업체들이 연달아 신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여름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동원수산(030720) ▶14,550(+12.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농수산업 발전'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과 참치 가격 상승 및 유통비 부담 감소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한세실업(105630) ▶44,950(+5.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대교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대교 (019680)	8,950 (+18.2)	7,570 (7/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비 감소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러닝센터 확대 추세, 중국어 학습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외형 축소국면 탈피. 눈높이 사업부의 턴어라운드, 차이홍 중국어의 저변 확대, 소빅스 매출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실적 회복 예상 - 높은 자산가치와 배당성향, 우수한 현금흐름 및 재무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넥센타이어 (002350)	14,250 (+11.3)	12,800 (7/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Original Equipment) 타이어 비중 증가, 고수익 제품인 UHPT(Ultra-High Performance Tire) 비중 증가 등 제품믹스 개선과 원재료 투입단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관세 부과에 따른 손해가 하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유가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로 유발되는 타이어 교체수요는 글로벌 타이어 수요 둔화를 일정부분 보완할 전망
에스원 (012750)	79,900 (+1.8)	78,500 (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보안 수요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분기에 시스템보안 가입자 성장세 지속 하반기에 건물관리, 상품판매, 정보보안 등 매출이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수익성 개선 예상 - 통합 보안업체로 도약, 시장 지배력 확대, 정책적 지원, 주택임대관리 사업 진출 등으로 장기 성장성과 수익성 강화 예상
대림산업 (000210)	85,200 (+3.9)	82,000 (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화부문의 고마진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부문은 해외 저가공사 관련 부담 완화와 국내 분양시장 호황에 따른 수혜로 2분기 수익성 개선 예상 - 유화부문 핵심 자회사인 여천NCC, 건설 자회사인 삼호와 고려개발 등 주요 자회사들의 턴어라운드 예상
진성티이씨 (036890)	6,140 (-12.0)	6,980 (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Caterpillar) 향 매출은 장기공급계약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 또한 글로벌 메이저 굴삭기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확대 추세 속에 Bobcat, Komatsu 등으로의 공급 물량 확대 지속 - 해외 고객사 비중 확대와 중국 법인의 턴어라운드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예상
KT&G (033780)	100,000 (+4.5)	95,700 (5/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인상으로 연초 감소했던 담배수요 및 시장 점유율의 점진적인 회복세와 ASP 개선 및 비용통제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예상 - 담배 수출 증가와 홍삼사업의 면세 실적 및 내수 수요 회복을 통한 실적 개선과 배당 매력도(금년 예상 DPS 3,700원)를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대림산업, KT&G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3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코웨이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코웨이 (021240)	98,000 (+0.5)	97,500 (7/20)	2,302	432	325	4,383	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가전 렌탈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환경가전 렌탈 부문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렌탈 가입자 순증세와 ARPU(가입자당 평균 렌탈요금) 상승세 지속 예상 - 외부 변수에 강한 비즈니스 및 수익 구조, 안정적인 국내외 성장 모멘텀, 판매채널 다각화, 배당 매력도, 해외사업의 잠재력 등을 주목할 필요 				
KCC (002380)	542,000 (-3.7)	563,000 (3/31)	3,528	329	260	26,571	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자재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재료 매입액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2014년 기말 배당금을 6년만에 주당 8천원으로 1천원 상향하며 주주 가치 제고에 노력 - 안정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풍부한 자산가치를 감안할 때 재평가 가능성 상존 				
엔씨소프트 (036570)	239,500 (+32.7)	180,500 (1/2)	861	266	220	11,035	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 가운데 기존 게임의 ARPU 상승과 길드워2 확장팩 출시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세 지속 예상 - 리니지1의 수익성 높은 신규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의 추가 구성상품 선택을 통한 ARPU 상승 예상 - 2015년에는 블레이드앤소울 TCG, 패션스트리트, 팜아 등 모바일 게임 다수 출시 예정 				
LG하우시스 (108670)	178,000 (+11.6)	159,500 (1/2)	3,137	163	123	12,279	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PVC 창호, 바닥재 등 건자재 건자재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자동차, 가전관련 소재도 거래처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 - PVC, 가소제, MMA 등 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미국에 자동차 원단 공장 증설, B2C 건자재 확대(온라인 '지인물' 오픈 등) 등 다각적 투자를 통한 장기 성장동력 강화 				
LG생활건강 (051900)	738,000 (+19.4)	618,000 (1/2)	5,083	600	427	25,640	2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 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실적은 개선세 지속 예상 -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SK하이닉스 (000660)	38,650 (-19.1)	47,750 (1/2)	19,340	6,100	5,180	7,120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 D램 수요 확대로 D램 가격 안정세 지속 - 애플 및 OEM 수요,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15년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 영업활동을 통한 순현금 창출능력을 감안할 때 자사주 취득 및 주주배당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유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생활건강, 엔씨소프트, SK하이닉스, KCC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건자재: 부엌과 욕실의 성장, 한샘 서프라이즈의 시사점

■ 한샘 2분기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률

한샘의 2분기 실적은 충격적인 서프라이즈였다. 별도 매출 4,011억원(+32.2% YoY), 영업이익 385억원(+58.6% YoY)으로 우리의 별도 영업이익 예상치 330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영업이익률은 9.6%로 사상 최대였다. B2C 부엌 매출이 56.3% 증가해 성장을 주도했다. B2C 부엌은 2009년부터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간 보여준 성장은 유통망 혁신과 물류 효율성 제고 등 기업의 자구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이 같은 투자가 주택 거래 활성화와 인테리어 관심 증대라는 시장 요인과 맞물리며 폭발적 성장을 이끌어 냈다. 2분기 실적을 감안해 2015~2017년 실적 추정을 변경하고 목표주가를 360,000원으로 상향한다. 우리의 가정은 2015년 부엌/가구 시장 점유율 22%이며 한샘의 목표는 30%이다. 사측 목표 도달 시 38%의 매출 upside가 있다.

■ 부엌과 욕실 시장의 성장, 리모델링 확대에 신축 모멘텀까지

부엌과 욕실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할 때다. 이 시장은 제한된 공간 내 시공의 난점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매출에 도달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다. 핵심은 시공의 효율성인데 주문이 고르게 전국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성이 높아질 때 수익성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 한샘은 2008~2009년, 시공인력 당 매출이 1억원을 돌파하며 영업이익률이 매년 1%p씩 개선됐다. 리모델링 관심이 낮았던 2012년까지는 한샘이 자구적 노력으로 시장 전환을 선도한 측면이 크다면, 이제는 주택 시장 회복이 맞물리며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올해는 전년에 이어 사상 최대의 분양이 예정돼, 최소 2017년까지 부엌과 욕실시장은 연평균 23.5%이상씩 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한샘 외 2nd tier 그룹에도 온기가 확산될 전망이다.

■ 부엌과 욕실 관련주: 한샘/현대리바트/대림B&Co/하츠/조광페인트

부엌과 욕실 업체들은 신축주택 완공 시 1차 수혜를 입을 뿐 아니라 입주 시 기존 주택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며 2차적인 Q 증가의 수혜를 누린다. 따라서 이익사이클이 가장 길고 상승폭도 크다. 또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입주량과 주택 거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은 ASP와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추가 catalyst다.

시장의 성장이 기대돼, 다음 관련주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7/9주 '부엌과 욕실의 성장, 그리고 낙수효과' 참조]. ▶현대리바트(079430): 부엌/가구 2위업체이자 B2B 시장 1위로 우호적 환경 변화를 흡수할 수 있다. ▶하츠(066130): 부엌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 관련도가 높아지고 있다. 레인지후드 1위 업체이자 환기시스템 2위로 신축 세대증가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대림B&Co(005750): 부엌과 달리 욕실 시장은 뚜렷한 주인이 없어 일종의 블루오션이다. 위생도기 1위업체로 직영 시공인력을 갖추고 욕실 리모델링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잠재력이 높다. ▶조광페인트(004910): 한샘/현대리바트/LG하우시스 등 부엌/창호 업체에 도료를 납품하는 목공용 도료 1위업체다.

■ 한샘 목표주가 360,000원으로 상향, 시장을 창출한 선도 업체

한샘의 목표주가를 360,000원으로 상향한다. 1) 2015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 7.8%, 10.5% 상향했고 2016년은 11.8%, 14.1% 상향했다. 2) 장기 고성장을 감안해 EPS 기준을 12MF에서 24MF로 확대 적용하고 목표 PER은 일본 '니토리'의 성장기 PER인 32.5배를 유지했다. 목표주가 도달시 12MF 기준 PER은 41배다. 2분기 실적의 포인트는 1) 부엌의 고성장(+56.3% YoY), 2)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률로 규모의 경제 효과 극대화, 3) IK채널을 이용한 욕실 등 전자재 시장 진출 등이다. B2B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줄고 '한샘 키친&바스' 전문 매장(부엌과 욕실을 한번에 수리하는 서비스)을 늘리며 부엌과 욕실 시장 침투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2015년 IK의 욕실 매출을 552억원으로 추정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7월 1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호텔 · 레저: 6월 출입국자수 Review: 메르스 여파 반영

■ 내국인 출국자수, 추세적 성장세 지속

6월 내국인 출국자수(승무원 제외)는 전년동월 대비 9% 증가한 1,261,209명을 기록했다. 성장률은 전년 낮은 기저와 폭발적인 해외 여행 수요로 1~5월 두 자리수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낮아졌다(표1 참조). 6월은 통상 비수기로 분류 되는데 메르스로 인한 일부 상품 예약 취소와 신규 예약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분기 출국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22.7% 늘었다. 하나투어(039130, 매수/TP 185,000원)와 모두투어(080160, 매수/TP 50,000원)의 6월 전체 송출객수(패키지+티켓)는 전년동월 대비 각각 14.4%, 24.6% 늘어 시장점유율은 각각 20.3%(+1.0%p YoY), 10.2%(+1.3%p YoY)로 상승했다.

■ 외국인 관광객, 메르스 타격으로 역성장

6월 방한 외국인수(승무원 제외)는 625,135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9.7% 줄었다. 특히 고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인 입국자수가 45.3% 감소했다. 같은 중화권 국가인 홍콩과 대만의 입국자수도 같은 기간 각각 75.5%, 75.9% 급감했다. 업계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월초부터 이어진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여행 예약 취소 중 72%가 중화권이었다. 2012년 9월 이후 역성장세를 지속한 일본인 입국자수도 42.3% 줄어 전월(-5.4% YoY)대비 감소폭이 커졌다. 2분기 외국인 입국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5.1% 줄었다. 국적별로 방한 중국인수는 4~5월의 입국객 호조로 6월 급감에도 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방한 일본인수는 19.5% 줄었다.

■ 유커 등 방한 외국인의 회복 속도가 관련 업계 주가 re-rating 결정할 전망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아웃바운드(Outbound, 내국인의 해외 여행) 시장은 이미 정상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시장은 회복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협회, 업계 등의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확대가 본격화되고, 단체 관광객 비자수수료 면제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도 펼치고 있어 방한 외국인수 역성장세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지노 등 인바운드 관광객 관련 업계에 대한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3분기 방한 중국인, 방한 일본인 수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52%, 17% 감소할 것이다. 관련 업계 주가 반등은 방한 외국인 회복 속도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며 실적 턴어라운드 속도 및 시점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업종 내에서는 내국인 비중이 큰 여행업종을 카지노 대비 선호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7월 2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엔씨소프트(036570)

매수(신규)

목표가: 320,000원

종가(7/17): 238,000원

실적은 거들 뿐

■ 매수 의견, 목표주가 32만원 제시

엔씨소프트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며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32만원을 제시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PS에 PER 25배(글로벌 peer PER 평균 23.7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기존 게임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신작들의 매출이 계단식으로 더해질 전망이다.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게임 시장이 원하는 개발력, IP인지도, 글로벌 서비스 노하우 등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점에 주목한다.

■ 2분기 실적은 이상 무, 3분기 이후 신작 효과 더해질 것

2015년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118억원과 708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2,039억원과 634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니지1이 대형 프로모션 2개를 진행하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PC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2016년에는 비용이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매출이 19% 증가하면서 EPS증가율이 38%에 달할 전망이다. 리니지 이터널은 2016년말 출시 예정이다.

■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 이슈 재점화, 배당 매력도 부각

엔씨소프트 등기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가 2016년 3월 완료된다.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이사 선임권 등을 놓고, 3분기부터 넥슨-엔씨소프트 간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30%였던 배당성향은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예상 배당수익률은 1.4%로 게임업종에서 유일하게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부각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757	205	159	7,961	1.7	241	31.2	19.5	4.4	14.8	0.2
2014A	839	278	230	11,520	44.7	315	15.8	9.5	2.7	18.4	1.9
2015F	875	280	234	10,789	(6.3)	322	22.3	13.2	3.3	16.3	1.4
2016F	1,041	395	326	14,887	38.0	439	16.2	9.3	2.8	19.9	1.4
2017F	1,245	549	451	20,592	38.3	596	11.7	6.4	2.4	23.2	1.4

*상기 보고서는 2015년 7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LG화학(051910)

중립(유지)

종가(7/17): 260,000원

고점은 지나갔다

■ What's new: 사업부문별 상이한 실적

LG화학의 2분기 영업이익이 5,630억원을 기록하며 우리의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각각 18%, 11% 상회했다. 이는 2분기 석유화학 업스트림 제품 가격 강세에 기인한다. 우리는 석유화학 사업부문의 이익 개선을 반영하여, 201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6% 상향한다. 그러나, 디스플레이와 리튬이온 배터리(LiB)부문의 실적은 수요 약세와 ASP 하락 압력으로 기대 이하의 결과를 보였다.

■ Positives: 석유화학 부문 강세... 그러나 스프레드 축소는 이제 시작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대규모 공급차질과 유가 상승에 기인한 업스트림 제품 가격 강세에 따라, 2분기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83% 개선되었다. 이는 업스트림 제품 가격 강세에 기인한 재고평가이익을 제외하고서도, 우리의 추정치를 1,200억원 상회할 수치이다. 그러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운스트림 석유화학 사업이 1) 원재료 지연 투입의 부정적 효과, 2) 전방산업의 수요약세, 3) 업스트림 제품 가격 조정과 공급과잉 문제로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3분기 현 시점까지의 동사 생산능력 가중평균 스프레드는 전분기 대비 26% 축소되었다. (ABS와 PS의 1개월 후행 스프레드는 전분기 대비 27~30% 축소되었고, HDPE와 LDPE의 1개월 후행 스프레드는 적자 전환했다.) 3분기가 계절적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하락에 기인한 제품 가격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회복 신호 또한 보이지 않는 점이 우려된다.

■ Negatives: 디스플레이, 리튬이온 배터리 부문 어닝쇼크

디스플레이 소재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방산업 수요약세와 LCD유리기판 유지보수로 전분기 대비 54% 감소했다. LiB 사업부문의 경우 적자 전환했다. 이는 전반적인 ASP 하락 압력과 수요부진에 자동차용 LiB의 R&D 비용증가까지 가세되었기 때문이다.

■ 결론: 하반기 위험 상쇄할 긍정적 재료 불충분

LG화학에 대해 '중립'의견을 유지한다. 하반기 업스트림 제품 가격의 조정은 다운스트림 제품 가격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1개월 후행 스프레드를 더욱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중기적으로 디스플레이와 LiB부문의 이익을 개선할 기폭제 또한 부족한 가운데, 동종업체 ROE-PBR분석으로 산출한 적정가치(253,390원) 대비 추가 상승여력은 제품 스프레드 축소에 기인한 하락 위험을 상쇄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5P				증감률		2015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5,465	5,073	(7.2)	5,429	3.2	(13.6)	19,342	21,271
영업이익	477	563	18.0	506	55.7	56.7	1,632	1,754
영업이익률	8.7	11.1	2.4	9.3	3.7	5.0	8.4	8.2
세전이익	456	493	8.1	491	52.1	70.0	1,496	1,700
순이익	349	353	1.2	378	43.3	55.6	1,118	1,312

*상기 보고서는 2015년 7월 1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7/13(월)	7/14(화)	7/15(수)	7/16(목)	7/17(금)	7/20(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61.52	2,059.23	2,072.91	2,087.89	2,076.79	2,073.31
	등락폭		30.35	-2.29	13.68	14.98	-11.10	-3.48
	등락종목	상승(상한)	683(8)	536(11)	488(15)	454(5)	283(2)	427(6)
		하락(하한)	147(0)	284(0)	325(1)	353(0)	534(0)	388(1)
	ADR		106.29	112.93	110.79	111.30	106.65	105.46
	이격도	10 일	100.00	99.96	100.75	101.57	101.17	100.91
		20 일	100.01	99.83	100.40	101.01	100.40	100.19
	투자심리		60	50	5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426	503	619	698	819	863
	거래대금	(십억 원)	6,235	6,807	7,571	7,511	8,471	5,968
코스닥	코스닥지수		749.46	757.12	761.59	774.40	773.23	782.64
	등락폭		18.74	7.66	4.47	12.81	-1.17	9.41
	등락종목	상승(상한)	683(1)	536(1)	488(1)	454(4)	283(5)	597(5)
		하락(하한)	147(0)	284(0)	325(0)	353(0)	534(1)	416(0)
	ADR		101.29	107.76	104.65	108.11	104.61	105.21
	이격도	10 일	100.53	101.36	101.94	103.58	103.37	104.20
		20 일	101.33	102.01	102.32	103.69	103.24	104.16
	투자심리		60	50	5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553	593	680	694	774	659
	거래대금	(십억 원)	3,593	4,002	4,192	4,890	5,060	4,264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925.7	1,058.0	964.0	189.1	141.2	230.5	54.4	24.1	324.726	57.9
	매도	3,795.5	1,077.0	1,066.4	218.1	168.1	277.1	58.1	29.9	315.2	66.8
	순매수	130.2	-18.9	-102.3	-29.0	-26.9	-46.5	-3.7	-5.7	9.5	-9.0
	7 월 누계	2,125.1	-808.0	-982.3	116.9	-219.5	-322.2	-142.0	-129.3	-286.2	-334.8
	15 년 누계	2,408.8	7,488.8	-9,833.9	-5,231.9	-1,328.0	-6,049.6	-700.2	-697.7	4,173.4	-63.7
코스닥	매수	3,775.0	235.7	260.2	59.0	28.9	69.2	28.6	5.2	69.3	31.5
	매도	3,863.5	198.6	190.1	49.5	23.2	44.9	10.9	7.2	54.4	50.1
	순매수	-88.5	37.0	70.1	9.4	5.7	24.3	17.7	-2.0	14.9	-18.6
	7 월 누계	-24.4	-119.7	448.6	63.9	71.6	203.9	37.8	-31.2	102.6	-304.5
	15 년 누계	697.2	-423.2	1,149.0	-126.3	371.6	616.7	56.4	-172.3	402.8	-1,423.1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9,010	유통업	-14,982
철강및금속	3,237	운수장비	-12,224
통신업	2,959	건설업	-10,888
NAVER	7,798	삼성물산	-15,508
고려아연	5,470	LG	-14,850
SK하이닉스	3,118	현대모비스	-6,762
SK C&C	2,906	대림산업	-5,172
한진	2,827	삼양홀딩스	-4,20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4,623	전기,전자	-20,270
서비스업	22,026	보험	-9,347
제조업	15,570	금융업	-8,421
삼성에스디에스	15,586	삼성전자	-17,648
아모레G	11,147	삼성물산	-10,430
엔씨소프트	9,495	현대건설	-8,960
아모레퍼시픽	8,103	삼성생명	-6,342
SK하이닉스	3,800	한미사이언스	-5,66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1,682	건설업	-2,693
유통업	1,411	철강및금속	-2,204
제조업	1,145	통신업	-1,525
KODEX 200	4,210	TIGER 중국소비테마	-5,516
TIGER 경기방어	2,311	현대건설	-2,852
롯데쇼핑	1,647	SK네트웍스	-1,569
삼성물산	1,603	유한양행	-1,521
제일모직	995	KT	-1,469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993	운수장비	-14,236
제조업	2,003	전기,전자	-5,377
섬유,의복	1,547	유통업	-3,918
현대산업	3,390	현대중공업	-5,829
KINDEX200	2,989	LG	-4,147
제일모직	2,279	현대건설	-4,100
대한유화	1,585	한샘	-3,943
NAVER	1,558	TIGER 200	-3,217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32,659	운수장비	-47,610
화학	31,720	전기,전자	-28,642
의약품	7,255	건설업	-27,290
NAVER	22,052	현대건설	-20,037
아모레G	19,593	LG	-19,661
삼성에스디에스	18,151	삼성물산	-16,844
현대산업	8,057	현대모비스	-14,461
아모레퍼시픽	5,505	현대제철	-11,840
SK C&C	5,117	LG전자	-11,047
OCI	4,193	KODEX 레버리지	-10,193
삼립식품	4,166	현대차	-9,649
삼성물산우	4,047	현대중공업	-9,547
영원무역	3,939	두산인프라코어	-7,451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27,856	유통업	-43,681
전기가스업	14,864	서비스업	-15,847
음식료품	12,111	전기,전자	-15,839
현대모비스	21,165	삼성물산	-43,266
한국전력	15,661	SK하이닉스	-30,177
LG	14,736	NAVER	-18,953
삼성에스디에스	10,895	현대산업	-11,170
LG전자	9,634	제일모직	-10,999
대림산업	9,115	현대중공업	-9,841
호텔신라	8,933	대한항공	-8,523
삼성전자우	8,323	삼성물산우	-8,131
현대차	6,522	고려아연	-7,340
기아차	6,357	일양약품	-6,84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5,417	통신장비	-2,187
디지털컨텐츠	4,344	사업지원	-2,038
의료,정밀기기	3,606	종합건설	-1,528
CJ E&M	2,368	모두투어	-2,009
위메이드	2,323	코스온	-1,711
씨젠	2,303	인선이엔티	-1,065
메디톡스	2,045	젬백스	-1,052
다음카카오	1,975	한국토지신탁	-94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4,169	인터넷	-3,788
전문기술	3,269	기계,장비	-2,140
도매	2,415	화학	-1,624
셀트리온	3,312	다음카카오	-3,543
크루셜텍	2,594	코오롱생명과학	-2,046
CJ E&M	2,451	씨젠	-1,667
인바디	2,349	솔브레인	-1,433
엑토즈소프트	2,320	테라젠이텍스	-1,08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599	통신장비	-1,310
의료,정밀기기	421	소매	-904
환경	223	운송장비,부품	-560
인바디	504	코스온	-1,664
탐엔지니어링	394	서부T&D	-927
인트론바이오	370	셀루메드	-588
휴맥스	364	평화정공	-583
크루셜텍	266	이노칩	-491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3,188	계약	-2,865
소프트웨어	1,504	통신서비스	-1,509
의료,정밀기기	1,497	IT부품	-1,310
CJ E&M	3,085	코오롱생명과학	-1,511
다음카카오	1,162	나이스정보통신	-1,390
CJ프레시웨이	1,109	동서	-1,068
위메이드	977	셀바이오텍	-619
하츠	928	유진로봇	-608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14,858	종이,목재	-3,900
전문기술	11,420	통신장비	-3,593
소프트웨어	9,196	통신서비스	-3,011
CJ E&M	10,881	코오롱생명과학	-4,375
씨젠	6,456	코스온	-4,127
위메이드	6,122	산성엘엔에스	-3,591
메디톡스	5,518	나이스정보통신	-2,890
인바디	5,351	메디포스트	-2,586
KG이니시스	5,177	젬백스테크놀로지	-1,893
엑토즈소프트	4,243	모두투어	-1,739
팜스토리	3,322	바이넥스	-1,670
KT유플러스	2,807	솔브레인	-1,530
한글과컴퓨터	2,092	젬백스	-1,355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18,505	인터넷	-12,853
디지털컨텐츠	8,576	반도체	-6,792
소프트웨어	6,331	통신서비스	-6,279
웹젠	7,292	다음카카오	-11,985
메디톡스	6,968	한국정보통신	-3,895
바이로메드	4,816	STS반도체	-3,335
바이넥스	3,244	인테그레이티드에너지	-3,026
오스템임플란트	2,764	이오테크닉스	-2,685
코오롱생명과학	2,072	OCI머티리얼즈	-1,886
유니테스트	2,016	파라다이스	-1,879
에스엠	1,868	원익IPS	-1,856
에이치엘비	1,723	인바디	-1,772
한국사이버결제	1,624	CJ E&M	-1,71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하이트진로	17 일	태광산업	45 일
OCI	17 일	하이트진로홀딩스	9 일
남해화학	15 일	KCC	9 일
쌍용양회	13 일	한국전력	9 일
TIGER 농산물선물(H)	13 일	LG	7 일
KODEX 국고채	12 일	모토닉	7 일
엔씨소프트	11 일	KPX케미칼	7 일
쿠쿠전자	9 일	BNK금융지주	7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위메이드	10 일	한국정밀기계	10 일
한국토지신탁	8 일	태웅	9 일
SBS콘텐츠허브	7 일	우주일렉트로	9 일
SK컴즈	7 일	솔브레인	7 일
원익IPS	6 일	EG	7 일
이오테크닉스	5 일	에스엠	6 일
에스엠	5 일	SK컴즈	6 일
크루셜텍	5 일	크레듀	6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엔씨소프트	76,626	삼성전자	72,135
대한항공	66,631	호텔신라	68,721
삼성전자	66,404	아모레퍼시픽	64,347
KODEX 레버리지	45,032	대한항공	57,939
삼성에스디에스	29,906	한국전력	57,811
OCI	28,472	삼성에스디에스	40,985
한화케미칼	26,602	현대차	39,484
NAVER	24,985	SK이노베이션	30,562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29,766	웹젠	10,867
위메이드	23,467	이테크건설	10,114
크루셜텍	16,296	에스엠	9,559
인바디	14,250	셀트리온	8,177
CJ E&M	11,153	동서	6,704
엑토즈소프트	10,875	바이넥스	5,689
KG이니시스	9,856	SK컴즈	4,376
이테크건설	9,648	녹십자셀	3,803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31,720	8,121	39,841
제조업	7,234	2,462	9,697
종이, 목재	2,296	2,474	4,770
삼성에스디에스	18,151	10,895	29,046
아모레퍼시픽	5,505	6,012	11,517
호텔신라	2,401	8,933	11,334
SK C&C	5,117	4,677	9,795
한샘	1,789	5,546	7,335
삼립식품	4,166	2,196	6,362
한화케미칼	3,847	2,069	5,916
대한유화	3,081	1,820	4,902
한진	3,362	717	4,079
더존비즈온	2,567	983	3,551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디지털컨텐츠	14,858	8,576	23,434
제약	3,906	18,505	22,411
소프트웨어	9,196	6,331	15,528
메디톡스	5,518	6,968	12,486
웹젠	1,416	7,292	8,709
KG이니시스	5,177	1,274	6,451
위메이드	6,122	308	6,430
바이로메드	1,567	4,816	6,383
엑토즈소프트	4,243	1,137	5,380
유니테스트	1,807	2,016	3,823
에이치엘비	1,934	1,723	3,657
오스템임플란트	680	2,764	3,444
한글과컴퓨터	2,092	498	2,58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생명	19 일	삼양홀딩스	18 일
LG	15 일	S&T중공업	14 일
일양약품	12 일	고려제강	13 일
효성	11 일	NH투자증권	11 일
POSCO	11 일	퍼시스	11 일
제일모직	11 일	LS산전	10 일
삼성SDI	9 일	베이직하우스	10 일
기아차	8 일	대상	9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루멘스	8 일	루멘스	13 일
동국산업	7 일	한국토지신탁	9 일
GS홈쇼핑	7 일	SBS콘텐츠헤브	7 일
코미팜	7 일	아트라스BX	5 일
평화정공	7 일	포스코엠텍	4 일
태웅	6 일	파라다이스	4 일
우주일렉트로	6 일	동진세미켄	3 일
덕산하이메탈	6 일	유진기업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제일모직	-89,641	삼성물산	-144,001
대우조선해양	-80,804	제일모직	-75,032
KB금융	-80,686	삼성물산우	-23,239
POSCO	-70,418	LG하우시스	-22,274
현대차	-61,906	현대증권	-21,618
현대모비스	-56,687	SK하이닉스	-18,941
삼성물산	-54,309	영원무역	-18,270
하나금융지주	-49,984	NH투자증권	-17,900

KOSDAQ			
기 관		외 국 인	
코스온	-7,713	토비스	-9,284
산성엘엔에스	-7,558	산성엘엔에스	-9,135
코오롱생명과학	-7,300	파라다이스	-7,602
선데이토즈	-6,708	이오테크닉스	-6,941
웹젠	-4,859	동화기업	-5,380
나노신소재	-4,591	STS반도체	-4,713
다음카카오	-4,172	KG이니시스	-4,280
평화정공	-4,153	유진기업	-4,254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유통업	-12,178	-43,681	-55,860	
전기,전자	-28,642	-15,839	-44,481	
철강및금속	-15,245	-8,891	-24,137	
삼성물산	-16,844	-43,266	-60,110	
현대중공업	-9,547	-9,841	-19,388	
제일모직	-4,931	-10,999	-15,930	
현대제철	-11,840	-2,290	-14,130	
두산인프라코어	-7,451	-4,797	-12,248	
한미사이언스	-6,203	-4,211	-10,415	
대한항공	-799	-8,523	-9,322	
일양약품	-1,752	-6,844	-8,596	
고려아연	-411	-7,340	-7,752	
SK이노베이션	-4,760	-2,943	-7,703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인터넷	-1,319	-12,853	-14,172	
통신서비스	-3,011	-6,279	-9,290	
종합건설	-822	-393	-1,215	
다음카카오	-894	-11,985	-12,879	
한국정보통신	-122	-3,895	-4,017	
파라다이스	-951	-1,879	-2,830	
메디포스트	-2,586	-143	-2,729	
컴투스	-451	-974	-1,426	
크리스탈	-517	-879	-1,396	
테라젠이텍스	-1,004	-331	-1,336	
KTH	-203	-916	-1,119	
평화정공	-961	-38	-999	
유진테크	-142	-772	-91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제일모직	284	52,616	
삼성전자	32	41,428	
삼성중공업	1,145	16,656	
삼성물산	221	14,852	
현대중공업	120	12,596	
현대차	99	12,355	
아모레퍼시픽	27	10,955	
LG생활건강	14	10,09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씨젠	74	4,954	
다음카카오	23	3,226	
바이로메드	15	2,569	
CJ프레시웨이	36	2,344	
이오테크닉스	18	2,247	
파라다이스	91	2,226	
산성엘엔에스	19	1,746	
KG이니시스	63	1,522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451	4,504,098	
호텔신라	8,697	1,126,226	
현대중공업	10,740	1,117,011	
아모레퍼시픽	2,526	1,015,473	
제일모직	5,248	939,455	
SK하이닉스	21,134	844,294	
현대차	6,727	830,840	
삼성중공업	55,482	804,49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9,787	1,642,293	
다음카카오	7,067	985,885	
CJ E&M	478	551,342	
위메이드	1,413	246,144	
파라다이스	8,179	201,624	
컴투스	1,206	175,308	
바이로메드	1,016	171,873	
서울반도체	7,638	134,039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증권	6,439	운수장비	-6,387
유통업	3,372	전기,전자	-2,848
기계	3,066	철강및금속	-1,739
메리츠증권증권	6,780	대우조선해양	-10,674
두산인프라코어	2,436	현대제철	-1,727
SK네트웍스	2,153	LG디스플레이	-1,704
현대상선	1,864	SK증권	-1,173
유진투자증권	1,701	신한지주	-1,096
오리엔트바이오	1,614	한화케미칼	-1,000
기아차	1,230	월비스	-894
삼성중공업	1,198	유안타증권	-834
금호타이어	1,141	TIGER 200	-650
현대중공업	1,089	LG유플러스	-56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화학	555	IT부품	-1,164
미분류	533	소프트웨어	-692
통신장비	490	음식료,담배	-396
원익IPS	529	한국토지신탁	-528
SBI인베스트먼트	464	셀트리온	-386
파라다이스	370	디아이디	-333
네오아레나	339	대아티아이	-331
NICE평가정보	319	포스코 ICT	-298
쇼박스	225	인터파크홀딩스	-270
성우하이텍	221	아가방컴퍼니	-233
씨케이이에치	194	지앤코	-227
한진피앤씨	193	차바이오텍	-193
엠케이전자	186	서한	-193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7/14(화)	7/15(수)	7/16(목)	7/17(금)	7/20(월)
외국인	7,488.8	-808.0	283.7	-38.4	235.1	181.5	-75.5	-18.9
기관계	-9,833.9	-982.3	-713.0	-121.3	-295.2	98.8	-292.9	-102.3
(투신)	-6,049.6	-322.2	-211.5	-28.7	-69.6	2.2	-68.9	-46.5
(연기금)	4,695.6	-269.9	-82.9	-40.5	-118.7	92.1	-29.4	13.6
(은행)	-697.7	-129.3	-66.4	-5.6	-32.8	-3.8	-18.5	-5.7
(보험)	-1,328.0	-219.5	-98.0	-12.6	-27.7	0.6	-31.4	-26.9
개인	2,408.8	2,125.1	674.5	168.2	60.9	-42.3	357.5	130.2
기타	-63.7	-334.8	-245.3	-8.4	-0.8	-237.9	10.9	-9.0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7/13(월)	7/14(화)	7/15(수)	7/16(목)	7/17(금)
KOSPI	1,997.1	2,011.3	1,915.6	2,061.5	2,059.2	2,072.9	2,087.9	2,076.8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22,126.1	22,260.1	22,327.7	21,727.5	24,290.9
(증감액)	334.1	-3,802.5	1,630.7	703.2	134.0	67.6	-600.2	2,563.4
(회전율)	26.7	29.9	34.0	44.4	48.6	52.7	57.1	55.7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929.8	407.1	25.1	-463.9	2,547.9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3,705.8	3,706.7	3,728.5	3,762.0	3,755.4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921.6	3,923.9	3,949.3	3,975.2	4,015.0
미수금	1,241.0	929.0	1,176.0	201.5	170.4	148.2	152.7	156.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7/10(금)	7/13(월)	7/14(화)	7/15(수)	7/16(목)
전체 주식형	77,382	-4,146	644	54	203	229	56	-48
(ex. ETF)		-2,529	459	41	68	165	76	-33
국내 주식형	60,024	-4,581	603	85	232	202	36	-74
(ex. ETF)		-2,964	418	72	98	138	56	-58
해외 주식형	17,359	435	42	-31	-29	27	20	26
(ex. ETF)		435	42	-31	-29	27	20	26
주식 혼합형	9,395	-1,381	-38	-1	5	12	13	-4
채권 혼합형	29,677	1,955	911	62	73	48	77	72
채권형	83,011	8,657	-513	7	9	65	-93	16
MMF	120,607	37,352	14,903	-684	-373	1,106	1,020	2,26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7/14(화)	7/15(수)	7/16(목)	7/17(금)	7/20(월)
한 국	6,931	-717	248	-34	205	158	-66	-16
대 만	4,071	-1,247	205	-5	60	40	109	-
인 도	7,042	858	248	48	81	119	-	-
인도네시아	346	30	-21	1	-22	-	-	-
태 국	-983	-516	8	3	4	-3	5	-
남아공	3,424	478	191	81	99	-17	29	-
필리핀	321	-84	-19	8	-10	-16	-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년말	7/13(월)	7/14(화)	7/15(수)	7/16(목)	7/17(금)	7/20(월)
회사채 (AA-)	2.43	2.02	2.02	2.01	2.01	2.01	2.00
회사채 (BBB-)	8.26	7.94	7.93	7.93	7.92	7.92	7.92
국고채 (3년)	2.10	1.80	1.80	1.79	1.79	1.78	1.78
국고채 (5년)	2.28	2.10	2.09	2.08	2.07	2.05	2.05
국고채 (10년)	2.60	2.51	2.50	2.49	2.48	2.47	2.47
미 국채 (10년)	2.20	2.39	2.40	2.35	2.35	2.35	-
일 국채 (10년)	0.33	0.44	0.46	0.46	0.45	0.43	-
원/달러	1,099.30	1,130.60	1,142.60	1,143.60	1,149.20	1,147.5	1,152.10
원/100엔	920.30	915.69	928.26	923.30	925.58	925.11	928.82
엔/달러	119.45	123.47	123.09	123.86	124.16	124.04	124.04
달러/유로	1.22	1.10	1.11	1.09	1.08	1.08	1.08
DDR3 1Gb (1333MHz)	1.34	1.16	1.16	1.16	1.16	1.16	-
DDR3 2Gb (1333MHz)	2.21	1.43	1.43	1.43	1.42	1.41	-
NAND Flash 16Gb (MLC)	2.18	1.69	1.69	1.67	1.66	1.66	-
CRB 지수	233.24	218.51	219.38	216.62	215.55	215.09	-
LME 지수	2,907.6	2,583.3	2,572.9	2,569.6	2,578.9	2,556.0	-
BDI	782	900	915	951	1,009	1,048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52.20	53.04	51.41	50.91	50.89	-
금 (달러/온스)	1,185.50	1,154.00	1,157.40	1,147.40	1,144.40	1,132.8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3	14	15	16	17
유럽> 그리스-EU 정상회담(12일) 日> 5월 광공업생산 MoM (-2.1%, n/a, -2.2%) 中> 6월 수출 YoY (2.8%, 1.0%, -2.5%) 6월 수입 YoY (-6.1%, -15.5%, -17.6%)	日> BOJ 통화정책회의 美> 6월 소매 판매 추정 MoM (-0.3%, 0.3%, 1.2%) 유럽> 5월 산업생산 MoM (-0.4%, 0.2%, 0.1%) 독일> 6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0.3%, 0.3%, 0.3%) ZEW 서베이 예상 (29.7, 29.0, 31.5)	中> 2분기 GDP YoY (7.0%, 6.8%, 7.0%) 6월 소매 판매 YoY (10.6%, 10.2%, 10.1%) 6월 광공업생산 YoY (6.8%, 6.0%, 6.1%) 美> Yellen 연준의장 하원 연설 6월 광공업생산 MoM (0.3%, 0.2%, -0.2%) 韓> 6월 실업률 (3.9%, 4.0%, 3.9%)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2%, 0.2%, 0.2%) 美> Yellen 연준의장 상원 연설 연준, 베이저북 발간	美> 6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0.3%, 0.3%, 0.4%) 6월 주택착공건수(천건) (1,174, 1,106, 1,036)
20	21	22	23	24
유럽> 그리스, 35억유로 ECB 부채만기일 실적발표> 美 모건 스탠리	실적발표> 美 버라이즌, 마이크로 소프트 애플	美> 6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n/a, 5.4, 5.3) 실적발표> 韓 신한금융지주, S-Oil OCI 美 야후, 보잉, 코카콜라, 월폴 샌디스크	韓> 2분기 GDP YoY (n/a, 2.3%, 2.5%) 日> 6월 무역수지(십억엔) (n/a, 45.8, -216.0) 실적발표> 韓 SK이노베이션, KT&G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링, KB금융지주 현대차 美 쉘컴, 제너럴 모터스, 맥도날드, 캐터필러, AT&T, 스타벅스, 아마존, 비자, 3M 컴캐스트, 셀진	美> 6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40, 546) 中> 7월 예비 차이신 제조업 PMI (n/a, 49.7, 49.4) 유럽> 7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n/a, 52.5, 52.5) 실적발표> 韓 하나금융지주, 현대위아 LG이노텍, 현대모비스, 기아차, LG생활건강 美 바이오젠, 무디스, 제록스, 아메리칸 에어라인
27	28	29	30	31
美> 6월 내구재주문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美> FOMC 통화정책회의	美> 2분기 GDP QoQ 독일> 7월 실업률 7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YoY	美> 7월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유럽> 6월 실업률 韓> 6월 광공업생산 YoY 日>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